

LED, 2014년 이후 조명 “주도”

Display Search, 수요비중 9.6%로 확대 ... 인센티브 정책 영향

TV 패널이 주도하고 있는 LED(Light Emitting Diode) 시장은 2014년부터 조명제품이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Display Search에 따르면, TV 패널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3년까지 LED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3년에는 전체 LED 백라이트 수요에서 TV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TV세트에 들어가는 LED 패키지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2014년부터는 전체 LED 시장에 대한 주도권이 조명 부문으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Display Search는 “제조기업들이 노트북과 모니터, TV 분야에서 대면적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LED 백라이트 수요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동시에 조명과 자동차용 기기 등 신규수요도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및 모니터에 사용되는 LED 패키지 숫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나 2012년에 15.1개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LED조명의 수요비중은 2010년 1.4%에 불과하지만, 2014년에는 9.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ED조명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교체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일본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LED전구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한편, 분기별 LED칩 공급수량은 관련기업들이 앞다투어 MOCVD(금속유기화합물 화학기상증착) 증설에 나서면서 2011년에는 2010년의 2배 수준에 달하고, 2011년 1/4분기에는 삼성과 LG가 양대 칩 공급기업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11/05/02>